

가톨릭제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소공동체

연중 제6주일
(세계 병자의 날)

2024년 2월 11일 [제2434호]

편집·발행 : 천주교 제주교구 사무처
catholic-chej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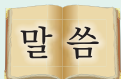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마르1,40)

도움을 청하였다(새미 은총의 동산) 가톨릭 제주교구사진가회

63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8길 14 <http://www.diocesejeju.or.kr>

사무처 729-9500 / 관리국 729-9502 / 복음화실 729-9501 / 선교사목위원회 729-9501 / 성서사도직 729-9503, FAX 729-9514
청소년사목위원회 729-9507, FAX 729-9516 / 가정사목위원회 729-9599, FAX 729-9598 / 참사랑가정상담소·교회법원 729-9509
사회사목위원회 729-9510 / 사회복지위원회 729-9511 / 성소위원회 729-9506 / 이주사목위원회 725-9199



“간절함이라는 인효성”

사무처장

이찬홍 야고보 신부



성사는 은총을 받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각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성사의 효과는 사효성과 인효성이 있습니다. 사효성은 성사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사의 근원, 기원인 원성사요, 성사의 집전자이시기에 성사 그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사효성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인효성은 성사 자체적인 효과가 아니라, 성사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지향에 따른 은총입니다. 성사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고 풍성하게 다가오는 은총입니다. 사효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주어 집니다. 그러나, 인효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사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노력을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도 마음이 더딘 사람과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이 인효성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사나 성사에 임할 때,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느낌 없이 그저 그렇게 성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동과 기쁨이 크면 인효성이 크고, 감동과 기쁨이 없으면 인효성이 적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효성이 받으려는 이의 마음 자세와 지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감동과 기쁨 여부에 따라 인효성이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효성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사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마음과 지향만 있다면 인효성은 충분하다.”라고 인효성의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효성, 인효성, 지향, 의도... 참 어렵습니다. 이른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간절함”이 인효성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설명은 못 된다 하더라도, 성사의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지향, 의도를 ‘간절함’으로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사의 은총은 받아 누리려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 만큼의 은총을 얻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과 나병환자의 대화 속에서도 사효성과 인효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청합니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곧, 나병환자는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면 자신이 낳을 것이라는 믿음, 지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총을 내려주시려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도와주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병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니...”라는 말씀 속에서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마음과 은총을 베풀어주시려는 마음인 인효성, 곧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원성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사의 기원,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사효성과 인효성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총이 충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내려주시려는 마음, 지향도 충분하신 분이시고, 실제 그렇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사의 은총이 충분하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총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효성은 성사 자체적으로 내려지는 은총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효성은 은총을 받아 누리려는 간절한 마음 자세, 지향이기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미사성제나 다른 성사를 통해 베풀어지는 은총을 아무 의식 없이 대하지 말고,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미사요, 성사라는 마음 자세로 임하면 어떨까요? 그 만큼 우리의 간절함이 클 것이요, 그 간절함이 큰 만큼, 받아 누리는 은총 또한 충분할 것입니다. 아멘.

|화|답|송|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2024년 제6기 틀낭학교(생태영성학교)

- 주제: 어제는 지극히 아름다웠던, 오늘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내일은 다시 아름다울 세상
- 일시: 3월 4일~5월 27일, 매주 (월) 저녁 7시~9시, 총 12회
- 방법: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 12회는 수료미사 관계로 대면 강의 예정
- 대상: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수료기준: 총 12회 중 9회 이상 참석
- 신청: 2월 23일(금)까지, 각 본당 사무실/ 문의: 729-9501 생태환경위원회

구분	일정	강사	강의 내용
영성	3.4(월)	김태정 베드로 신부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담당 사제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핵심내용 요약 및 전달
신학	3.11(월)	김영수 안드레아 제주기상청 주무관	기후변화의 위험성
	3.18(월)	오충운 야고보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제주의 가치를 빛낸 에밀 타케
	3.25(월)	서두옥 예로니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해양 생태계와 오염
	4.8(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주의 물의 위기와 물 순환 사회
	4.15(월)	김태수 안젤로 한라생태체험학교 대표	살아있는 자연으로 만나는 한라산과 오름
		임은영 크리스티나 산림청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지역 식물의 다양성과 보존
	4.22(월)	김범훈 토마스 아퀴나스 제주꽃자왓공유화재단 이사장	제주 화산섬과 꽃자왓 그리고 해외 사례
실천	4.29(월)	고제량 아그네스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제주의 습지
	5.6(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
	5.13(월)	양금자 데레사 생활협동조합 활동가	생활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정연옥 베로니카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적 삶과 연대활동
조직 수료	5.20(월)	이재돈 세례자 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서울교구 하늘땅물벗 활동 사례
	5.27(월)	김태정 베드로 신부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담당 사제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소개 및 단체 창립 안내
		이소민 로사 하늘땅물벗 제주교구벗 반석벗	
		문창우 비오 주교 제주교구장	수료미사

※ 5기 틀낭학교 미수료자는 결석했던 강의를 수강하면 수료 가능합니다.
(단, 5회 이상 강의 참석했던 수강자에 한함)

“인색은 마음의 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24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을 통해 악덕과 미덕에 관한 교리 교육을 이어가며 돈에 대한 집착의 “죄”인 “인색”을 설명했다. 인색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적게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교리 교육: 악덕과 미덕 5. 인색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덕과 미덕에 관한 교리 교육 여정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인간을 관대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돈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인 ‘인색’(avarizia)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색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죄가 아닙니다. 은행 잔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나 관련이 있는 악덕입니다. 인색은 마음의 병이지 지갑에 관한 게 아닙니다.

사막 교부들은 이 악습이 어떻게 수도승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토록 막대한 유산을 포기한 이래로 고독한 독방으로 들어간 수도승들이 어떻게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에 집착하며 인색에 사로잡혔는지 분석했습니다. 수도승들은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여 서로 빌려주지도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아낌없이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장난감을 꼭 붙들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라고 반복하는 아이들의 상태로 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장에는 현실과의 건강하지 않는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저장강박증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 수도승들은 고감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 곧 죽음에 대한 묵상을 제안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로 그 재물을 관속에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재물을 함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색이라는 악덕의 무의미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물과 맺는 소유의 유대는 겉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 위에 머무르는 이방인이요 거류민일 따름입니다(레위 25,23 참조).

이러한 단순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인색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려는 시도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손에 움켜쥐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그는 수확한 곡식을 모아둘 공간을 더 크게 지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변수인 죽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20)

다른 경우에는 도둑들이 우리를 위해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도둑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유익한 훈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마태 6,19-20).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에도 한 수도승이 잠든 틈을 타 독방에 간직하고 있던 몇 가지 물건을 훔쳐간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수도승은 그 사건에 미동도 하지 않고 도둑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도둑을 발견하자 그는 도둑맞은 물건을 찾는 대신 자신의 독방에 남겨져 있던 몇 가지 물건을 더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걸 감싸하셨네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종종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끝끝내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몇몇 부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더 이상 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맘을 흘려 모아들인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부요함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재물을 소유하는 책임에 대해 말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하느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지만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인색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반면 불행의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삶은 보기 흉합니다. 저는 다른 교구에서 만난 한 형제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병환 중이었습니다. 그는 혼인한 사람이었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 하나를 마셨는데, 이 사람은 요구르트를 아끼기 위해 어머니에게 아침에 요구르트를 절반만 주고 오후에 나머지 절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색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은 조소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네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네요.” “아니랍니다, 모든 재물을 가져가려고 해서 관이 닫히지 않는다는데요.” 이러한 인색은 다른 이들에게서 비웃음을 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다른 모든 것은 이곳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를 명심합시다! 우리는 너그려워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너그럽고,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너그려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번역 김호열 신부

상설 고해소

- 2.12(월)은 설 연휴로 고해성사는 없습니다.

축! 강우일 주교 수품일: 2.14(수)

축! 영명

- 김태훈 신부: 2.11(오늘) 성 리푸쵸

교구 성령 기도회

- 일시: 2.17(토) 오전 9시~오후1시/ 표선성당
- 담당: 현요안 요한 신부
- 주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소공동체”
교구 사목교서에 따른 성령은사쇄신과 치유안수축복

63차 선택 주말 파견 미사

- 일시: 2.18(주일) 오후 3시/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파견 미사에 사제, 수도자, 참가자 부모 및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일시: 2.20(화) 저녁 7시 30분/ 서귀포성당
2.21(수) 오후 3시/ 용두암 사제관

청년성서모임 SHEMA 성서가족 봉헌미사

- 일시: 2.25(주일) 오후 3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대상: 모든 청년성서 가족

2024년 교구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 일시: 2.23(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 장소: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대상: 본당 여성연합회, 여성신심단체 임원 및 여성 교우

2024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 일시: 2.24(토) 오후 5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대상: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3명), 교구단위단체장,
상임위원

성소 모임 및 피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 일시: 2.17(토) 오후 2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수녀회 성소 모임(신성여고내 수녀원)

- 문의: 010-4537-1632 김루시아 수녀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성소 상담

- 대상: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721-9912, 010-3344-9413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 성소 상담

- 제주 지역 문의: 010-6624-7745

세계 병자의 날 미사

병고를 겪고 있는 이들과 의료 종사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2월 11일(오늘) 오후 4시
- 집전: 문창우 비오 주교
- 장소: 제주대학병원 지하 세미나실

SPES학교 개학 미사

- 일시: 2월 18일(주일) 오후 2시/ 동광성당
- 대상: SPES학교 등록 학생(신규 등록 포함)

첫 영성체 가정교리교사 연수

- 일시: 2월 17일(토), 18일(주일)/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대상: 가정교리 희망 교사, 수녀님, 신부님
- 목적: 1) 초등부 어린이 첫영성체 준비
2) 첫영성체 가정교리 지도자 양성
3) 가정 복음화의 기회
- 강사: 인보성체수도회 첫영성체 가정교리연구소 수녀
- 문의: 729-9507 청소년사목위원회

제2회 제주가톨릭청소년음악캠프 공연/미사에 초대합니다

- 우리들의 공연: 2월 17일(토) 오후 7시
- 생활성가찬양사도단 PAX 공연: 2월 17일(토) 오후 8시
- 파견미사: 2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이시돌 젊음의 집 2층 강당
- 문의: 723-8715, 010-5778-1461

교리교사 1차 양성과정 연수

- 일시: 2월 24(토) 오전 10시~12시/ 김기량성당
- 대상: 청소년사목위원장, 모든 교리교사
- 문의: 729-9507 청소년사목위원회

청년성서모임 SHEMA 상반기 그룹봉사자교육

- 일시: 2월 25일(주일) 오전 10시~ 오후 3시
- 장소: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신청·문의: 729-9507 청소년사목위원회

제주가톨릭펠릭스합창단 단원 모집

- 대상: 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자
- 기간: 2월 29일(목)까지
- 연습: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회관 2층
- 문의: 010-3801-1643 이영효 세레자 요한(지휘자)
010-6440-2183 박윤숙 효주아네스(총무)

일도하나로마트멤/신자최대할인
금 호 탁 이 어

우은배 다미아노, 우성한 요한
금호&수입타이어 전문
(주)타이어프로 하나로점 727-4007

서귀포시 제주시 **그랜드보청기**
성당신자 보청기 최대 60% 할인
히트브랜드 대상 보청기부문 1위
24시간 상담 방문/ 장애인&어르신 지원금
대표이사 강 철 (오네시모)
☎ 064)725-9275
한라일보 밑 사거리 서광로 225, 2층

에코방수
(특수충진감압)

아크릴 수지 마이크로시멘트 충전
반영구적 방수, 30%의 난방효율 기대
현 천 국 (안토니오)
T. 010-9086-8965

제주권역재활병원 앞/일호광장
서울성모재활의학과
정직한 진료를 약속 드립니다.
원장/전문의 정 유 철 (시몬)
주소: 서귀포시 동문로5 1층
TEL: 064)732-7773

중 앙

주임신부 김석주 베드로 보좌신부 이건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53-2271 Fax.756-5533

- 세계 병자의 날 특별미사: 11일(오늘) 교중미사 중
-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14일(수) 오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 청소년 사목을 향한 첫걸음: 15일(목) 오후 7시~9시
강사: 김상운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
주제: 청소년들을 위한 처방전
- 예비자 선발예식: 18일(주일) 교중미사 중
- 성체현시 및 자비의 5단 기도
1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1층 자비의 경당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중앙성당)
중앙신협 11002-12-000414/ 농협 953-01-171513
제주은행 04-01-105454

동 문

주임신부 남승택 가브리엘 보좌신부 라치현 다비드
사무실 757-8866 Fax.756-5534

- 임마누엘회, 울드레아 차 나눔: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체를 위한 미사: 13일(화) 오후 7시 30분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16일(금) 오후 7시 30분
- 제분과위원회: 16일(금) 오후 7시
- 교육분과 월례회: 17일(토) 오후 7시
- ME 차 나눔: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청소년사목위원회: 18일(주일) 오후 7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동문성당)
농협 961-01-090226

화 북

주임신부 강형민 다니엘 보좌신부 홍호표 이시돌
사무실 756-6004 Fax.726-6003

- 꾸리아: 11일(오늘) 오전 9시
- 재의 수요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14일(수)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 합동 십자가의 길: 16일(금)부터
매주 화·수·금요일 오후 7시
- 성소후원회 미사: 16일(금) 오후 7시 30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화북성당)
농협 901016-55-000378/ 제주은행 01-01-243791

조 천

주임신부 현문일 도미니코
사무실 784-6173 Fax.784-6688

- 제분과위원회: 13일(화) 저녁미사 후
- 꾸리아: 18일(주일) 오전 9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조천성당)
농협 901044-51-026131

김 녕

주임신부 양요왕 요한
사무실 783-4320 Fax.784-4320

- 믿는 이들의 어머니 꾸리아
18일(주일) 오후 6시/ 교육관(※ 일정 변경)
- 환경 정화 활동
18일(주일) 오후 1시 30분/ 김녕주변 플로깅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김녕성당)
농협 901099-51-049374

세 화

주임신부 김해인 파트리치오
사무실 782-1773



- 미사시간 안내
화~금: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주일 저녁미사: 오후 7시 30분
주일: 오전 8시 30분, 11시(교중)
- 본당 홈페이지 안내
네이버 카페 검색 "세화성당"
- 본당 건축기금 계좌번호
농협 351-1188-2488-13 천주교제주교구세화성당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세화성당)
농협 351-1184-7563-13

동 광

주임신부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보좌신부 허준혁 요셉
사무실 721-9911 Fax.721-9914

- 꾸리아 월례회의: 11일(오늘) 오전 9시
- 본당 소공동체의 날: 15일(목) 오후 8시
- 하늘땅물벗 미사: 16일(금) 오후 7시 30분
- 청소년사목위원회: 16일(금) 저녁미사 후
- 주일학교·첫영성체 등록 신청: 18일(주일)까지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동광성당)
농협 351-7210-9911-53/ 농협 901022-51-000791
제주은행 33-01-004393/ 신협 131-005-493236

김 기 량

주임신부 황태종 요셉
사무실 722-8866 Fax.722-8867

- 1,2 꾸리아: 11일(오늘) 오전 9시
- 제분과위원회: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재의 수요일 예식: 14일(수) 오후 7시 30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김기량성당)
농협 301-0100-4226-51/ 제주 12-01-104143

광 양

주임신부 허찬란 임마누엘
사무실 753-4498 Fax.756-5535

- 연례회: 12일(월) 오후 6시
- 청소년 사목위원회: 16일(금) 저녁미사 후
- 중·고등부 성가발표제: 17일(토) 오후 5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광양교회)
농협 961-01-090578/ 제주은행 03-01-088496

서 문

주임신부 고남일 요셉
사무실 753-2979 Fax.756-5536

- 부활반 종합교리: 17일(토)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서문성당)
농협 957-17-003017/ 제주은행 04-01-083444

신 제 주

주임신부 고병수 요한 보좌신부 고승건 미카엘
사무실 742-4678 Fax.743-2727

- 꾸리아: 11일(오늘) 오전
- 재의 수요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14일(수)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 ME 미사: 17일(토) 오전
- 소공동체협의회: 18일(주일) 오전 10시
- 합동 십자가의 길: 1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본당소식

- 50주년 건축기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신제주성당)
신협 131-021-188836/ 농협 301-0299-6388-61
제주 39-01-058615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신제주성당)
신협 131-005-439756/ 농협 961-17-004132
제주 33-01-008737

노형

주임신부 양영수 베드로 보좌신부 설교빈 가브리엘
사무실 742-9122 Fax.742-9124

- 청소년사목위원회: 16일(금) 저녁미사 후
- 성소자들을 위한 미사: 17일(토) 오전 6시 30분
- 성소후원의 날: 17일(토)~18일(주일) 매 미사 중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노형성당)
농협 980-01-011873/ 제주은행 29-01-001491
신제주신협 11036-12-000569

연동

주임신부 현경훈 미카엘
사무실 744-7811 Fax.743-8004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미사 중)
- 성서40주간 홍보: 18일(주일) 오전 9시, 11시 미사 중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연동성당)
농협 1079-17-000961/ 제주은행 39-01-002864

정남주

주임신부 임문철 시몬
집무실 743-0892 사무실 743-0893 Fax.712-0057

- 합동 십자가의 길: 13일(화) 저녁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저녁미사
- 신자총회: 16일(금)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정남주성당)
제주은행 59-01-001816/ 농협 351-0893-0893-03

하귀

주임신부 김영태 베네딕도
사무실 713-9001 Fax.713-2106

- 본당 생태 환경 실천 사항
2월: 세숫물 받아서 사용하기/ 실천상품: 실리콘 지퍼백
- 꾸리아: 11일(오늘) 오전 9시
- 빈첸시오 기부금 납부: 18일(주일)
- 소공동체협의회: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하귀성당)
농협 901136-51-054764
새마을금고 9002-1432-7777-0

애월

주임신부 현문권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99-0026 Fax.799-0079

- 안나회, 성모회: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합동 십자가의 길: 16일(금) 오후 7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애월성당)
신협 131-015-182355

한림

주임신부 최현철 안드레아
사무실 796-4044 Fax.796-1044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소공동체 모임: 15일(목) 오후 7시 30분
- 합동 십자가의 길: 16일(금) 오후 7시
- 후원회비 납부의 날: 18일(주일)
- 평신도사도직협의회·제분과협의회: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연령회 전례연습: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청소년사목위원회: 18일(주일) 청소년가족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한림성당)
농협 901060-51-038761

금악

주임신부 이어돈 미카엘
사무실 796-4188 Fax.796-4196

- 합동 십자가의 길: 16일(금) 오후 7시 30분
- 미사 시간 안내
평일미사: 월/금/토 오전 7시
화/수/목 낮 12시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시(교중)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제주교구 금악성당)
신협 131-005-426257

신창

주임신부 김선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73-1044 Fax.772-4044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합동 십자가의 길: 16일(금)/ 사목회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신창성당)
농협 901077-51-016013

고산

주임신부 현성훈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73-2004 Fax.773-0140

- 요셉회·하상바오로회: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공소 사목회의: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성경공부: 14일(수) 저녁미사 후
- 십자가의 길: 16일(금) 오후 7시/ 구역별
- 어르신들을 위한 미사: 16일(금) 오후 7시 30분
- 꾸리아: 16일(금)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고산성당)
농협 901088-51-031311

모슬포

주임신부 송승진 요한
사무실 794-2074 Fax.794-0409

- 모든이의 어머니 꾸리아: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병자영성체: 16일(금) 오전 9시
- 사목평의회: 22일(목) 오후 7시 30분
- 십자가의 길: 23일(금) 저녁미사 후
- 성소후원회: 23일(금) 십자가의 길 후
- 소공동체협의회: 25일(주일) 오전 9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모슬포성당)
농협 903014-51-041223

화순

주임신부 김석순 마태오
사무실 794-0483 Fax.794-0481

- 빈첸시오회: 13일(화) 저녁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하늘땅물빛: 16일(금) 저녁미사 후





본당소식

-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성전기금: 농협 351-1201-0188-53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재)제주교천주교 화순성당)
신협 131-019-523843

중문

주임신부 이시우 안드레아
사무실 738-6123 Fax.738-6122

- 매월 첫 주일 4:30워링·연도: 교중미사 전
- 다락방기도회: 11일(오늘) 오전 9시 30분
- 세라핌 성가대: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대건회: 11일(오늘) 저녁미사 후
- 빈첸시오회: 16일(금) 저녁미사 후
- 부활의 모후 꾸리아: 16일(금) 저녁미사 후
- 건축기금
농협 351-0936-6545-53(천주교제주교구 중문성당)
- 교무금 계좌번호
농협 903812-51-011539(천주교제주교구 중문성당)

서귀포

주임신부 임남용 라파엘
사무실 762-3444 Fax.733-5551

- 펠릭스회: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레지오단원을 위한 미사: 13일(화) 오후 7시 30분
- 사랑의 어머니 꾸리아: 13일(화) 저녁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중앙구역 미사: 15일(목)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서귀포성당)
농협 977-01-058427/ 국민 702-25-0005-756

서귀북자

주임신부 송동림 레오
사무실 733-5523 Fax.733-5552

- 성지가지 수합: 11일(오늘)까지/ 성당입구 수거함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저녁미사
- 종교등부 졸업여행(스키캠프): 13일(화)~15일(목)
- 소공동체협의회: 14일(수) 저녁미사 후/ 지하강당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1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해당 구역 및 단체 주관
- 사목회 임원회의: 16일(금) 저녁미사 후/ 사목회의실
- 유아세례: 17일(토) 오후 5시
- 자비의 기도
매일 오후 3시/ 성전에서/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서귀북자성당)
농협 971-01-132992

새서귀포

주임신부 정만영 콜베
사무실 739-9334 Fax.738-9338

- 연령회: 14일(수) 저녁미사 후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청소년사목위원회
16일(금) 저녁미사 후
- 울뜨레야: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초·중·고 주일학교 등록, 첫영성체 신청
25일(주일)까지/ 사무실
- 예비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성소후원금(예금주: 천주교제주교구새서귀포성당)
교무금: 농협 301-0300-1727-81
성소후원금: 농협 301-0301-4864-71

호돈

주임신부 정필종 도미니코
사무실 767-2355 Fax.767-0156

- 꾸리아: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소공동체 축진팀 교육: 18일(주일) 오후 5시
- 울뜨레야: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위미공소 성전 건축기금 계좌번호
농협 351-1129-3472-03 효돈성당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효돈성당)
농협 903057-51-028969

남원

주임신부 서용범 베드로
사무실 764-1712 Fax.764-6100

- 예언자들의 모후 꾸리아: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재의 수요일 미사: 14일(수) 오후 7시 30분
- 하늘땅물벗(큰영벗) 모임: 16일(금) 저녁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남원성당)
농협 903079-51-064753

표선

주임신부 양명현 토마
사무실 787-0173 Fax.787-4514

- 꾸리아: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재의 수요일: 14일(수) 저녁미사 중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화·수·금 저녁미사 전
-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교우들을 위한 미사
16일(금) 저녁미사
- 교구성령기도회: 17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울뜨레야: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제주교구 표선성당)
농협 903080-51-086934

성산포

주임신부 조학균 베드로
사무실 782-0500 Fax.784-7799

- 꾸리아: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성지가지 수합: 11일(오늘)까지
- 재의 수요일 예식: 14일(수) 저녁미사 중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성산포성당)
수협 877-61-010207/ 농협 903091-51-122324
제주 40-01-077280

우도

주임신부 심승우 마르티노
사무실 783-0631 Fax.783-0632

- 재의 수요일: 14일(수)
※ 사순시기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미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지가지 수거: 11일(오늘)까지
- 예비자교리 신청: 3월 시작 예정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8시 30분
평일미사
월: 오전 7시, 화/목: 오후 7시, 수/금: 오전 10시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제주교구우도성당)
수협 2010-0945-7826/ 농협 351-1184-2110-43